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

환상적인 풍경



노스웨스트 준주에 있는 국립공원들의 면적은 스위스보다 큼니다. 사람의 발자취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산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버펄로 떼뿐입니다. 그리고 **등반 불능의 권곡(Cirque of the Unclimbables)**이라 불리는 산맥이 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만큼 크고, 야성과 신선함을 간직한 곳을 만나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세상 꼭대기로의 드라이브

캐나다 가장 북쪽에 있는 덴스터 하이웨이를 타고 떠나는 로드트립은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야생의 국립공원 탐험

나하니, 우드 버펄로, 아울러빅, 그 외 다수. 길들지 않은 강, 태고로부터 위용을 뽐내온 봉우리와 야생 동식물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국립공원은 세계적인 불가사의입니다.



기이한 볼거리

핑고 정상에 올라 반짝이는 소금 평야를 보거나, 숲 취한 숲을 탐험하거나, 지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광물로 이뤄진 화산재 둔덕을 둘러보세요.



시간의 지하실을 탐험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40억 년 된 돌, 다이아몬드가 박힌 킴벌라이트, 금을 함유한 석영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끝으로 떠나는 하이킹

이곳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험난한 배낭여행 루트인 355km 길이의 전설적인 카놀 트레일(Canol Trail)을 포함해 훌륭한 트래킹 명소가 있는 등산인들의 천국입니다.

장관을 이루는 하늘



장관을 이루는 물



“오로라가 나왔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탁트인 하늘에 종종 울려 퍼지는 탄성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과 최적의 지형으로 세계에서 북극의 오로라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자연의 우주 조명소는 **연간 200야** 이상 펼쳐지며 세계 곳곳에서 수천 수만 방문객이 이 장관을 보러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곳의 물놀이는 가히 전설입니다 **그레이트베어 호, 매켄지 강, 버지니아 폭포, 북서항로.** 이곳 순수한 블루의 심연에서 세상에서 가장 살 오른 물고기가 스포츠 낚시광들을 기다립니다. 수상 민박 (B&B)에서 물 위를 부유하는 느낌으로 편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수정처럼 맑은 연못과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카누, 황금이 흩뿌린 듯한 해안 절벽을 따라 유유히 지나가는 카약과 꿈만 같은 한밤중의 태양 아래 끝없는 낯을 즐길 수 있는 인적 없는 해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가장 핫한 파티를 찾아
순록을 만날 수 있는 머스크랫 잼버리 또는 얼음 궁전에서 펼쳐지는 스노우 킹 페스티벌 등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는 축제가 가득합니다.



산장에서 묵어가는 하룻밤
도시의 인공 조명을 떠나 대자연의 오로라가 펼쳐지는 산장으로 오세요. 좋은 팁을 귀찮게 드릴까요? 온수 욕조의 좋은 자리를 먼저 찜하세요.



썰매개들과 함께
허스키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겨울 눈밭을 질주하세요. 개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하울링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얼음길 위의 스틸
얼음길 트럭 운전사가 되어보고 싶으신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끄꿍 언 고속도로는 로드트립 마니아들이 꿈꾸는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민물 & 얼음 낚시의 천국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곳을 찾는 낚시광들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발밑의 얼어붙은 호수 아래로 세계 최상급의 송어, 파이크, 꼬치고기가 어슬렁거립니다.



월척의 기록에 도전
몇년 전 그레이트베어 호에서 세계 기록인 35.8kg짜리 송어가 잡혔습니다. 이 물고기는 무게를 쟀 후 다시 방생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곳 어디에선가 당신의 미끼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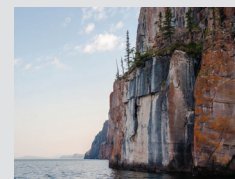
청명한 물 위에서 노젓기
매켄지, 나하니, 킬, 코퍼마인의 물길에 배를 띄우고 극지 바다로 유유히 흐르는 장대한 강줄기와 만나보세요.



나만의 호수 찾기
영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의 호수들에는 아직 이름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나만의 호수를 찾아 직접 이름을 지어 보세요.



나이아가라를 능가하는 거대한 폭포
버지니아 폭포에서는 나하니 강이 미식축구 경기장만한 베팅에서 격렬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인생에 한번은 봐야만 하는 장관입니다.



내륙 바다로의 항해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의 이스트 암(The East Arm)은 전 부분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뤄졌으며, 아름다운 포구와 황금 섬이 있는 선원들의 천국입니다.